

古典小說의 〈幸福한 結末〉과 韓國人의 意識

徐 大 錫*

1. 序 論

古典小說은 이른바 해피엔딩으로 대부분 공식적 構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행복한 결말이라는 공식적인 구성은 과연 한국 고전소설만의 특징인가 하는 물음과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특징은 한국인의 어떤 思想 또는 意識에서 形成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本稿는 이 같은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집필된다.

2. 古典小說 結末의 性格

古典小說의 幸福한 結末이 韓國文學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심각하게 論議된 바 없다고 본다.¹⁾ 古典小說의 構成上 특징으로 지적된 바는 있으나 이는 현대소설의 構成과의 對比가 연구자에게 잠재적으로 작용한 것이며 외국문학과 비교를 통해서 얻어진 결론은 아니었다고 본다.

따라서 이것을 立證하는 방법으로서 고전소설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었다고 생각되는 외국작품과 대비 검토하는 것이 지름길이 되리라고 본다. 즉 외국작품을 번안한 작품을 源泉되는 작품과 비교하여 번안양상의 특징으로서 행복한 결말이 지적된다면 이것이야말로 한국적 특징으로 부각될 것이기 때문이다.

* 梨花女大 教授(國文學專攻)

1) 概說書類에서 言及된 바 있으며 이같은 특징을 문제삼은 개별적 論攷는 찾지 못했다.

다음 歷史的 실제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을 검토하는 것 역시 이같은 특징을 분명히 드러나게 하는 또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悲劇的으로 生을 마친 人物의 傳記를 作品化했을 경우, 행복한 結말이라는 構成上의 특징이 어떻게 人物의 最後와 調和되었는가를 검토하여 봄으로써 작품의 구성상 특징이 우리민족의 意識世界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古典小說 작품중에 彩鳳感別曲은 中國小說 「王嬌鸞百年長恨」의 翻案小說로서 源泉作品과는 다른 幸福한 結末로 改作된 作品이고 林慶業傳은 仁祖朝의 名將 林慶業의 一代記를 作品化한 것으로 歷史的 事實이나 人物에 實際傳記와는 差異나는 結末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이 두 작품에서 보여주는 幸福한 結末의 樣相을 檢討하고 그 意味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가. 彩鳳感別曲

彩鳳感別曲은 今古奇觀 三十五回 王嬌鸞百年長恨의 譯改라는 事實이 金台俊에 의해서 지적되었고²⁾ 그 뒤 金起東·李相翊에 의하여 源泉作品과 內容에 상세한 비교 검토가 이루어졌다.³⁾ 그 결과 彩鳳感別曲은 「王嬌鸞百年長恨」의 序頭部分인 男女의 結緣過程만 모방했을 뿐 李朝末期의 時代의 背景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現實에서 取材하여 이루어진 作品이라는 결론이 나타나게 되었다.⁴⁾

翻案小說은 源泉作品과 差異點이 많을수록 翻案者의 創意力이 높い 評價될 수 있으며, 그 差異點은 바로 自國의 文學의 特性이며 自國 國民情緒의 반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⁵⁾

따라서 彩鳳感別曲의 後半部가 源泉作品인 「王嬌鸞百年長恨」과 전혀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은 韓國文學의 特性을 파악하는데 귀중한 一面을 제공해 준다고 본다.

2) 金台俊, 「增補 古鮮小說史」(서울: 學藝社, 1939) p. 96.

3) 金起東, “彩鳳感別曲의 比較文學의 考察”(「東大論文集」1집, 1964)
李相翊, “彩鳳感別曲과 王嬌鸞百年長恨”(「異河潤先生華甲紀念論文集」, 1966)

4) 金起東, 明揭古.

5) 拙稿, “蘇和縣羅衫再台”系 翻案小說研究”(「東西文化」5집 啓明大 東西文化研究所, 1973) 참조

그러면 論述의 順序상 간략한 兩者의 比較를 통하여 差異點의 性格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

彩鳳感別曲의 段落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평양성내에 사는 김진사의 딸 채봉은 동산에서 꽃구경을 하다가 前선 천부사의 아들 강필성과 눈이 마주친다.
2. 채봉이 후원으로 사라진 뒤 필성은 채봉이 떨어뜨린 손수건을 주어 거기에 戀詩를 써서 추향을 시켜 채봉에게 전한다.
3. 채봉은 필성에게 답시를 써준다.
4. 이 때 채봉의 어머니 이부인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필성은 채봉의 집에 매파를 보내 청혼을 한다.
5. 이부인은 남편이 서울 가고 없어 주저하다가 마침내 허락한다.
6. 김진사는 서울에 가서 허관서 문객 김양주를 통하여 관직운동을 한다. 그리하여 허관서를 만나게 되고 만남으로 과천현감을 하게 되고 딸 채봉까지 허관서 소실로 드러 보내도록 약속한다.
7. 김진사는 평양에 와서 가산을 정리하고 아내와 채봉을 데리고 상경한다.
8. 상경 도중 旅舍에서 채봉은 도주하고 김진사는 火賊을 만나 모든 재물을 빼앗긴다.
9. 김진사는 빈 손으로 허관서를 찾아갔다가 投獄되고 이부인은 채봉을 찾으러 평양으로 내려온다.
10. 추향의 집에서 피신하던 채봉은 어머니를 만나 사정을 듣고 자기 몸을 기생으로 팔아 허관서와 약속한 미납금 오천냥을 어머니에게 준다.
11. 기생이 된 채봉은 강필성과 문답하던 詩를 문제로 내걸고 이에 답시를 하는 사람에게 허신하기로 한다
12. 이 소문을 듣고 찾아간 강필성은 채봉과 해후하여 사랑을 속삭인다.
13. 이 때 새로 부임한 평양감사 이보국은 송이(채봉)의 서화가 유명하다는 소문을 듣고 몸 값을 주고 데려다가 文書를 처리하게 한다.
14. 채봉의 소식을 듣고 필성은 감영의 이방이 되어 근무한다.
15. 이부인은 허관서에게 돈을 전달하였으나 채봉을 안내어 놓는다고 그

대로 김진사를 가두어 둔다.

16. 채봉은 어느날 밤, 필성을 그리워하며 감별곡을 지어 부르고 감사에게 필성과의 관계를 모두 밝힌다.

17. 감사는 자기가 主婚이 되어 채봉과 필성을 결혼시키기로 하고, 마침 허판사가 죄를 짓고 삼족이 주멸되자 조정에 보장을 내어 김진사를 석방하게 한다.

18. 채봉은 부모를 만나고 필성과 결혼한다.⁶⁾

「玉嬌鸞百年長恨」은 弊世通言 卷三十四와 今古奇觀 三十五회에 수록된 작품으로서 그 來源은 情史에 보인다고 한다.⁷⁾

이 작품의 단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王忠의 딸 嬌鸞은 후원에서 그녀를 뛰다 美少年이 엿보는 것을 보고 香房으로 숨는다.

2. 그 少年은 周廷章으로 후원에 들어와서 떨어진 수건을 주워 一首 戀詩를 써서 嬌鸞의 侍女를 시켜 진한다.

3. 교란은 答詩를 보내고 그 뒤 편지와 詩를 계속 주고 받는다.

4. 周廷章은 교란의 姨母인 曹姨를 통하여 교란에게 接近하여 婚書誓約을 하고 通情한 후 열렬한 사랑을 속삭인다.

5. 廷章은 父親 周司教가 四川峨嵋縣尹이 되어 떠난 후, 반년 동안은 교란과 같이 머물렀으나, 부친이 身病으로 回鄉했다는 소식을 듣고 교란과 애끓는 이별을 하고 고향인 吳江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6. 廷章은 고향에 가서 부호인 魏同知的 딸과 결혼하고 교란을 잊어버린다.

7. 교란은 정장에게서 아무 소식이 없자 張客을 시켜 廷章의 소식을 탐문한 결과 魏女와 결혼한 사실을 안다.

8. 교란은 絶命詩 三十二首와 長恨歌를 짓고 그동안 廷章과 唱和한 詩書 및 婚書紙를 함께 봉하여 吳江關大尹에게 보내고 자살한다.

6) 東國大學校韓國學研究所編, 「活字本 古典小說全集」 卷十, 서울, 亞細亞文化社刊行, 原本 彩鳳感曲別 참조.

7) 孟瑤, 「中國小說史」 第二册, (臺北 傳記文學出版社印行 民國 59年) p. 245.

9. 吳江關大尹 樊內은 교란이 보낸 一切 서류를 보고 廷章을 잡아드려 薄倖男子를 징계하는 표본으로 打殺한다.⁸⁾

10. 以上の 要約된 內容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彩〉와 〈王〉은 전혀 다른 意味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러나 두 작품이 無關하다고 볼 수는 없다. 두 작품의 공통점은 첫째 男女의 結연과정의 一致하고, 둘째 女人이 長篇 詩歌를 지었고 그 詩歌에 감동한 官長이 女主人公의 願을 해결해 준다는 점이다.

그러나 〈彩〉는 두 男女가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結합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인데 반하여 〈王〉은 婚約한 男女의 관계가 男子의 背信으로 파멸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작품의 意味는 전혀 다르게 歸結됨을 볼 수 있다.

만약 〈彩〉가 〈王〉의 翻案小說임이 確實하다면 두 작품의 差異는 결국 悲劇的 終末을 幸福한 終末로 바꾸려는 意圖에서 基因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체로 관련되는 사건의 단락과 그 달라진 부분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王〉에서 嬌鸞과 廷章의 離別은 廷章의 부친이 身病으로 故郷에 돌아왔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고 廷章이 嬌鸞을 背信하게 된 것은 父母에게 告하여 許諾을 받지 않고 婚約을 정한 데서 비롯된다. 즉 부친이 廷章 모르는 사이에 돈도 많고 美貌도 출중한 魏同知의 딸과 혼인을 정했고 廷章은 美色과 富에 끌려 信義를 저버리게 된 것이다. 즉 〈王〉에서 悲劇을 초래한 張本人은 男主人公 周廷章이고 그 이유는 財色을 탐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愛情을 주제로 한 小說에서 男主人公이 財色을 탐하고 背信을 일삼는 부정적 人物로 設定될 경우, 幸福한 終末로 이끌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彩〉에서는 이같은 人物을 따로 設定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許判書다. 허판서는 권세를 믿고 백성의 膏血을 빠는 惡德高官이고 財物과 女色에 눈이 뒤집힌 人物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人物에게 농락당하는 金進士를 채봉의 부친으로 設定하였다. 따라서 채봉과 장필성의 結합에 저해되는 요소는 김진사와 허판서이며 이들은 男女 主人公들과는 대립적인 存在였다. 대립되는 人物의 박해에 의하여 제기되는 수난은 對立되는 人物을 除去함으로써

8) 抱孃老人著, 大學足本「今古奇觀」(臺北 文源書局印行 民國 65年 再版) pp. 535~549참조.

세 극복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은 幸福한 결말로 작품을 이끄는 데 흥미 요소로 작용할 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즉 〈王〉에서 男主人公 周廷章의 背信과 그로 인하여 파멸당하는 最後를 〈彩〉에서는 허관서라는 人物을 따로 設定하여 轉駕시킴으로서 男女主人公의 원만한 결합을 可能하게 하였던 것으로 본다. 이같은 改作의 意圖는 作者의 個人的인 취향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우리 민족의 思考構造나 당시의 社會的 價値觀의 반영으로 풀이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다시 부연한다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던 男性 中心의 思考는 男主人公의 배신과 몰염치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王〉의 작품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拒否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또 하나의 이유는 怨限을 맺는 것을 싫어하는 우리 민족의 公同된 思想的 基盤이 한 女人의 파멸한 원한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비극적 종말로 마무리하는 것을 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 문제는 임경업전을 검토한 뒤 재론하기로 한다.

나. 林慶業傳

林慶業傳은 丙子胡亂을 前後로 하여 活躍했던 朝鮮朝 仁祖代의 名將 林慶業의 一代記를 小說化한 것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林慶業은 金自點의 謀計로 억울하게 杖殺된 人物이었다. 먼저 實傳과 小說을 비교하여 林慶業의 最後가 어떠한 差異를 보여주는가를 검토하기로 한다.

實傳에서는 林慶業이 沈器遠의 逆謀事件과 關聯되어 下獄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林慶業의 罪의 有·無를 가지고 朝廷에서 論議할 때 元斗杓 등은 無罪를 주장했고 金自點 등은 有罪를 고집했었다. 仁祖는 金自點이 주장하는 有罪의 根據가 不明確하고 不合理한 점을 들어 沈器遠과 同謀했다면 구태여 멀리 明으로까지 갈 必要가 있느냐고 하여 회의적인 태도를 취했었다. 金自點은 自己의 主張이 不利하자 罪狀이 確定되기도 전에 林慶業을 혹독한 고문으로 致死하도록 한 것이다.⁹⁾ 이것은 金自點과 林慶業의 私怨에 의한 것이고 親淸派와 親明派의 相殘의 所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치

9) 拙稿, '林慶業傳研究' (『韓國學論叢』 霞城 李瑛根博士古稀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刊, 1974). 참조

림 逆名을 쓰고 죽은 林慶業은 오랫동안 그 陋名을 벗지 못했다. 林慶業이 伸冤되고 復官된 것은 肅宗 23年の 일이며 이것은 林慶業 死後 半世紀 뒤인 것이다.

그러나 小說에서는 林慶業이 억울한 최후로 끝을 장식하는 것이 아니고 金自點에 대한 報復과 林慶業의 伸冤 復官 贈職을 부연하여 悲劇的 終末로 인하여 惹起되는 충격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林慶業이 歸還한다는 소식을 들은 金自點은 王에게 林慶業을 모함하나 듣지 않자 私意로 역적으로 몰아 투옥시킨다. 林慶業은 獄에서 전옥으로부터 金自點의 謀計임을 들어 알고 몸을 날려 대궐에 들어가서 王에게 金自點과 대질하여 自點의 죄를 폭로한다. 그러나 대궐에서 나오다가 난장을 맞고 옥중에서 숨을 거둔다. 그러나 죽은 뒤 王의 꿈에 다시 나타나서 金自點이 逆心を 품은 사실과 자신이 김자점에게 謀殺당한 것을 아뢴다. 그리하여 王은 自點을 국문하여 自白을 받고 그의 三族을 滅하고 自點의 屍身을 林慶業 家族에게 주어 접점이 오려내어 冤恨을 풀게 한다. 이에 慶業은 다시 王에게 現夢하여 謝禮한다. 그런 뒤 王은 慶業의 집을 旋門하고 <달너>에 서원을 세워 경업의 화상을 모시고 祭享을 받도록 한다.

이처럼 임경업의 최후는 50餘年 以後에 이루어진 사실까지 당시 현실로 옮겨 美化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¹⁰⁾

이것은 분명히 悲劇的 結末을 回避하는 韓國인의 意識의 所産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悲劇을 싫어하는 意識은 어떠한 思想에 根底를 둔 것인가 하는 것이 다음에 검토할 문제이다.

3. 진오귀궐에 나타난 韓國人の 意識

우리 민족의 意識構造를 파악하는 방법으로서 民衆 속에서 傳承되는 民俗이나 口碑文學 자료를 分析하는 것이 知識層이 生産한 文學遺産을 대상으로 하는 것 보다도 더욱 타당도가 높으리라고 생각된다. 대체로 知識層의 文化

10) 上揭書.

는 외부의 영향에 민감하고 生活方式이나 思考構造도 個人에 따라 다른 面이 많다고 볼 수 있기에 어느 한 두 사람의 思想이 國民의 思想을 대변한다고 보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그와는 달리 口碑傳承은 傳承集團의 思考構造가 持續적으로 반영되어 形成된 것으로 外界의 영향에 반응이 둔하고 개인적 특수성이 변화에 크게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민족의 意識의 基層이 保持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巫俗이나 巫歌에서 찾을 수 있는 意識構造와 古典小說의 幸福한 結末이 意味하는 意識構造를 연결시켜 보는 것은 無謀한 작업이 아니라고 본다. 巫歌는 巫만의 專有物은 아니며 그를 들었던 民衆들과 더불어 그 生命이 지속된 것이고 巫俗思想 역시 巫俗信仰을 가졌던 民衆 전체의 思考의 迎合된 것이기 때문이다.

巫俗 儀禮에서 가장 中心을 이루고 있는 것은 재수굿과 진오귀굿 계열이다. 재수굿 계열은 천신굿, 별신굿, 당굿, 성주굿, 안택굿 등을 들 수 있고 진오귀굿 계열은 진오귀, 집가심, 방가심, 씨꿈굿 등을 들 수 있다. 재수굿은 現實의 福利推求의 思考에서 행해지는 巫儀로 볼 수 있으나 本論考와 直結되지 않으므로 詳論을 約하기로 한다.

진오귀굿은 사람이 죽었을 때 行하는 儀式으로서 亡者의 魂靈을 위로하고 갈 길을 引導하여 주는 굿이다. 그러나 진오귀굿에 흐르는 정신은 解冤이 중심이 됨을 알 수 있다. 죽 살 만큼 살다가 평범하게 죽은 사람은 이 굿을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반하여 젊어서 원통하게 죽었을 경우에는 경제적 여유가 없더라도 거의 필수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 여유는 冤愆한 죽음을 한 亡者의 魂靈은 갈 곳으로 가지 못하고 人世에 彷徨한다고 믿고 이같은 亡靈의 彷徨은 그 억울함을 풀지 못했기 때문이며 굿을 하여 冤을 풀어줌으로써 방황하는 靈은 갈 곳을 찾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冤靈의 彷徨을 꺼려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이것은 冤靈의 作戲로 인하여 산 사람의 삶이 沮害된다고 보는 思想에 根據를 둔다. 俗稱 귀신이 붙어서 發生하는 疾病이나 事故는 대체로 이러한 冤靈들의 所謂라고 看做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冤靈을 除去해야 되고 冤靈을 除去하기 위해서는 冤愆한 죽음을 한 亡靈의 怨限을

풀어주고 저승세계로 引導함으로써 冤靈의 存在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思考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長者풀이」이다. 사마장자를 잡으러 온 저승사자 셋은 사마장자의 머느리가 차려 놓은 음식과 의복의 대접을 받고 사마장자 대신 그의 말을 잡아간다. 말은 저승에 잡혀가서 지옥에 갇히어 온갖 형벌을 받는다. 그 후 말이 恨을 품고 밤낮으로 소리쳐서 울어대니 사마장자는 꿈자리가 사납고 밤에 잠도 아니오고 말라가게 되어 말씨꿈 곳을 하여 준다는 것이다.

말 씨꿈이나 히 주시요 말 씨꿈 히주머는 원수가 은연되어 사람으로 되어 나갑니다……말씨꿈곳을 허네 그리 하루를 곳을 허니 염나대왕 문이 열리는 구나 이틀 곳을 허니 칼산지옥 문이 벗어진다. 사흘을 곳을 허니 발의 고채 끌려진다. 나흘을 곳을 허니 고랑이 풀어진다. 五月 닷새 곳을 허니 말의 허물 벗어지고 인도환생하여 사람이 되어 오네.¹¹⁾

이 巫歌에서 볼 수 있듯이 말의 魂靈이라도 억울한 죽음을 했을 경우는 그것이 사람을 해롭게 한다는 사실과 씨꿈곳을 함으로써 冤靈의 作害를 풀 수 있다는 사상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冤靈作害의 이야기는 巫歌뿐만 아니라 說話에서도 많이 찾을 수 있다. 장화홍련전 계열의 鬼神報讎說話는 모두 冤靈의 報讎說話로서 民衆들이 冤靈을 두려워했다는 思考의 表現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은 冤靈에 대한 恐怖는 바로 怨恨이 맺어져서는 안된다는 教訓意識으로 變成되는 한편 怨恨을 맺었다면 반드시 풀어버려야 된다는 思考를 形成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의 思考構造—怨恨을 맺지 말고, 맺은 怨恨은 풀어야 된다는—은 바로 悲劇的 終末을 忌避하는 思考와 연결된다고 본다.

悲劇的 終末은 主人公의 悲劇的 最後로 作品의 結末이 처리되는 것이기에 이것은 곧 冤愆한 죽음을 만드는 것이고 冤靈의 存在를 만드는 것이다.

中國小說 〈王〉에서 王嬌鸞의 죽음은 곧 冤愆한 죽음이며 이는 곧 怨鬼가 됨을 의미한다. 林慶業傳에서 역시 林將軍의 最後는 더없이 억울한 죽음이기에 이것을 방지해 둔다면 무엇인가 無事하지 못할 것이라는 不安感이 造

11) 任哲宰, “茁浦巫樂”(文化財管理局, 1970). pp. 138~140

成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王>을 <彩>로 改作하면서 人物의 역할 성격을 變造하면서 幸福한 結末로 바꾸었고 林慶業傳에서는 一種의 冤풀이에 해당하는 報讎 伸冤 부분이 부연되었다고 해석하고자 한다.

이와같은 결과는 悲劇的 終末로 인하여 생기는 충격을 완화하고 忌避感을 해소하는 구실은 하였으나 悲壯美를 통한 生의 意味를 부각시키는 美學을 창조하는 데는 많은 장애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結 論

古典小說의 結末은 대개 幸福으로 處理된다. 이러한 構成의 특징은 중국 소설을 번안한 <彩鳳感別曲>과 歷史的 人物을 主人公으로 한 <林慶業傳>을 검토하면서 韓國小說의 특징으로 보다 분명히 드러남을 알 수 있었다.

<彩鳳感別曲>의 源泉作品인 <王嬀鸞百年長恨>은 男主人公의 背信이 招來한 悲劇을 보여준 것인데 비하여 <彩>는 男女의 結合過程에서의 逆境과 難關, 그리고 그것을 打開하고 結合에 成功하는 모습을 제시하여 완전히 異質적인 作品으로 改作되었다.

<林慶業傳>에서도 林慶業의 悲劇的 最後는 너무나 잘 알려진 歷史的 事實이기에 이를 고치는 것은 不可能한 일이기에 다만 悲劇的 最後로 因하여 惹起되는 충격이나 忌避感을 緩和시키기 위하여 報讎와 伸冤의 부분을 부연하였다고 본다.

이러한 結末處理에서 보는 바와 같이 幸福한 結末은 韓國古典小說의 一般的 특징임이 確認되며 이것은 韓國人의 意識에 內在된 冤靈作害로 인한 恐怖感과 그 恐怖感에서 由來된 怨恨 忌避의 思考에서 形成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悲劇的 終末이란 결국 冤靈의 存在를 만드는 것이기에 冤靈에 대한 恐怖感과는 相馳되는 것이다. 따라서 冤愆한 일은 단들지도 않고 불가피하게 만들어졌다면 만드시 풀어버리는 우리 민족의 思考에서 幸福한 結末이라는 古典小說 構成上의 圖式은 理解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